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극단 SMT

995-
최혜경
희망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극단 SAY 제9회 공연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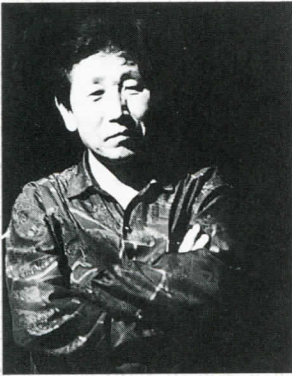
작 / 하 장 길
연 출 / 허 영 길
음악작곡 / 박 철 흥
무대장치 / 김 학 지
 / 조 석 진
조 명 / 전 민 수
소 품 / 최 은 영
진 행 / 이 화 진

제 작 / 최 시 영
포스터도안 / 최 해 성

1995. 12.15 ▶ 31

SAY 소극장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마음의 문을 열때를 위하여.....

연출 / 허영길

창녀 출신의 한 여인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다중인격성을 고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의식구조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외형적인 수식을 벗어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 본질(본능)과 神이 선사한 맑은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것에 믿음을 표출하고자 했다.

이번 작품에 1995년도 공연 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을 해주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극단 SAY에 본작품 공연을 쾌히 승낙하고 또한 많은 애를 써주신 극작가 하창길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터와 인쇄물에 좋은 그림을 주신 심당 최해성화백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의 연습을 마칠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나도 사실은 다중인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말입니다...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해 주었는데 이 무거운 마음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이상복씨와 임해련씨 그리고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단 SAY 대표

거짓
극작가
이 작
다. 그녀
부되어,
던 양부
뒤, 그녀
이런 단순
격절환의
사건만으
수는 없을
우리에게
는 흐름이
녀에겐 무
실에 아연
심연이 있
존재에의
가를 그녀
그런 왜곡된
고 있는 어
이라는 것을
었다. 그런
이다. 그리고
심연을 떠받
동시에 그녀
가 살고있음
올빼미 말이다

거짓의 숲속에서.....

극작가/ 하 창 길



이 작품은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녀는 한국 고아 출신으로 한국 가정에 입양이 거부되어, 미국에 입양되었던 여자. 더구나 그녀를 보살피던 양부마저 그녀가 바로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뒤, 그녀는 다중 인격질환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한 몇개의 사건만으로 우리는 그녀의 다중인격질환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한 몇개의 사건만으로 우리는 그녀의 다중 인격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야기를 접하고 무척 놀랐다. 우리에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두가지 서로 갈등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녀에겐 무려 36개의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했다. 나는 인간의 존재 그 밑바닥에 엄청난 심연이 있음을. 자기 존재를 보호하고 확인하기 위한 존재에의 열망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그녀를 통해서 막연하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힘이, 어떤 근원이, 어떤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나의 첫 신앙 고백작품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마음의 심연을 떠받치고 있는 사랑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내속에도 그녀처럼 올빼미가 살고있음도 알았다. 거짓의 숲속에서 울고있는 올빼미 말이다.

작 품 내 용

주인공 마리아는 그녀가 다니는 성당에 속한 고아원의 아이들 중 한 아이를 교살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 도중에 다중 인격을 지닌 정신병자라는 점이 밝혀져 정신병원에서 요양 받고 있는 여자다. 그런데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의 정신 병력을 통해 그녀의 내면에 다양하고 추악한 얼굴 외에도 너무 성스러운 면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녀의 살인 동기가 너무 희박하다고 느끼고 그녀의 주변 인물을 모아 연극을 재판극 양식의 연극으로 공연하게 된다. 이 재판극 공연 과정을 통해, 그녀의 다중 인격이 다시 재현되고 의사가 혐의를 주고 있는 인물들과 그녀와의 관계가 하나씩 드러난다. 그리고 다중 인격이라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다른 인격도 폭로된다. 그리고 실제 살인 범은 그녀가 기거하는 여관의 일하는 여자로 밝혀지고 그 여자또한 그 무대를 통해 자신이 범죄자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무대였음도 밝혀진다.

이 작품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교민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녀는 다중 인격 질환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자인데, 다중인격 질환이란 한 인간의 인격이 여러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정신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한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라도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 내밀한 자아와 닿아 있는 존재의 근원인 신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현

저 유명한 불가사의한 격질환에 의
다만 스코
씨』에서 이
인격질환까
질환자는 완
다중인격
설명에 의하
마나 근원적
성당에서 자
있는 정박아
뒤에 시체로
서 치료를 받
불가사의한 사
놓았다.

『마리아』 파
여관주인 김
부 주제에 열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
사랑했으므로
불구하고 『검
『마리아』가
신을 원망했다
용서받을수 있
김옥자는 남을
정박아 요셉이
래를 불렀다는
신 질환자를 말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세
이 하나 있었습
내마음속 깊은 곳
다중인격질환을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마리아/
남 명 지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의사/
이 상 복



김옥자/
임 해 련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신부/
문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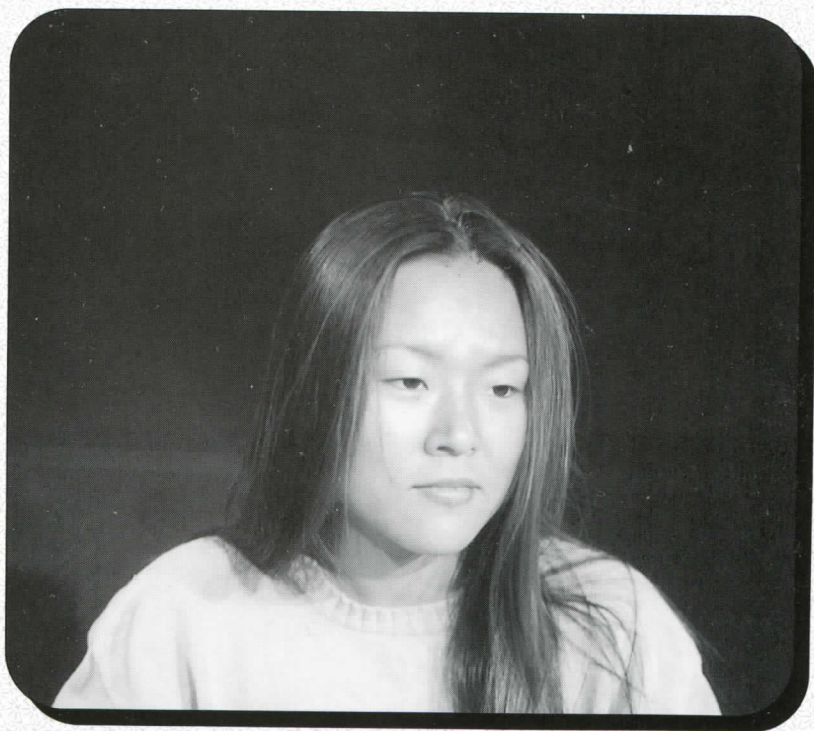


검사/
최정운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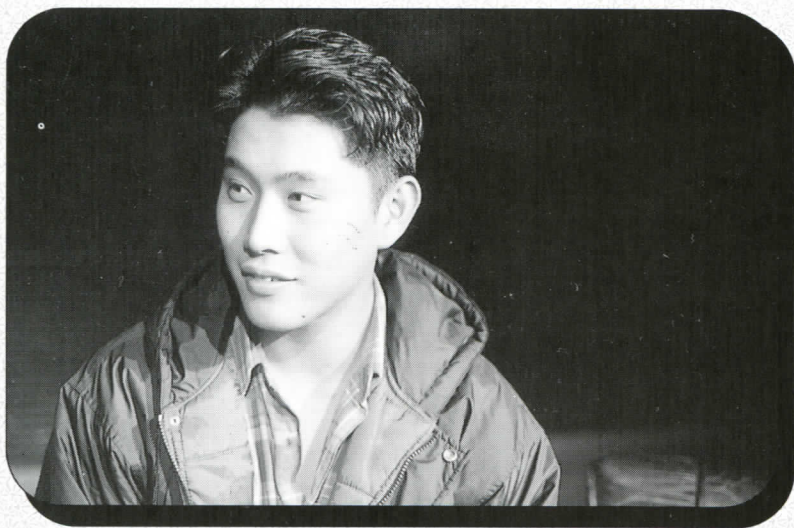


남자1/
지 대 한



김말분/
최 복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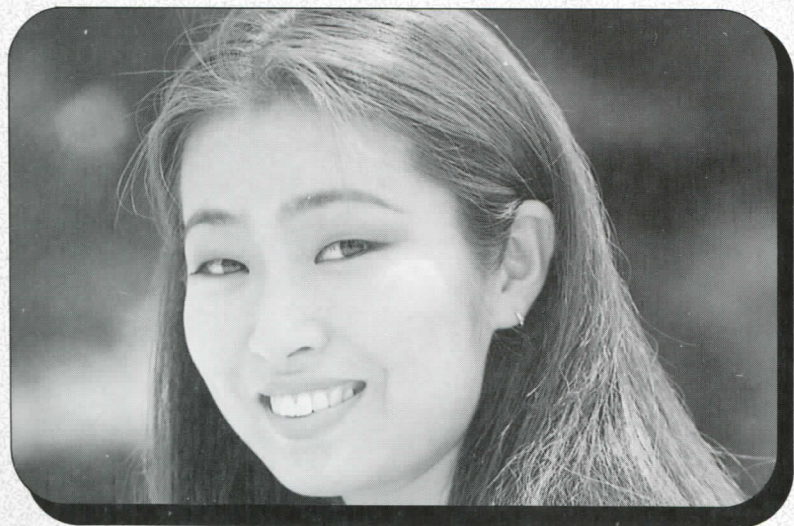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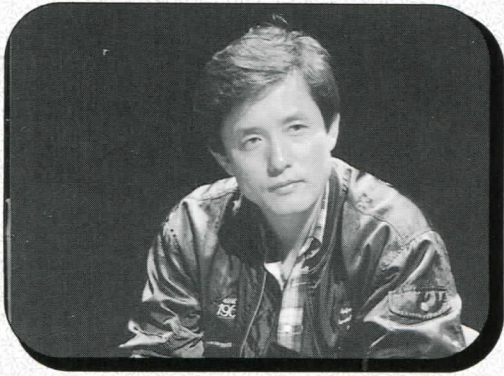
남자2/
최 주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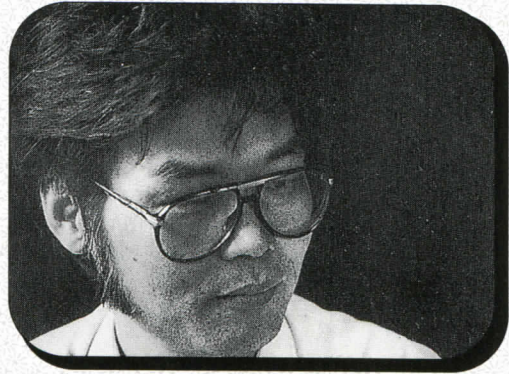
수녀/
박 주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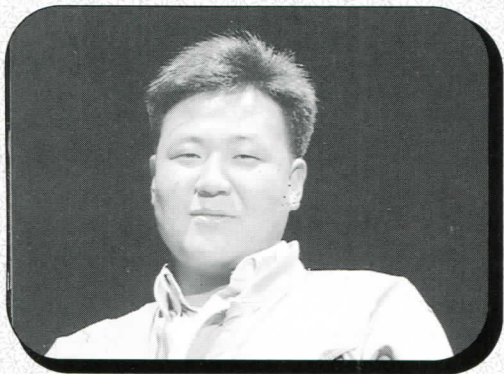
재판장
김 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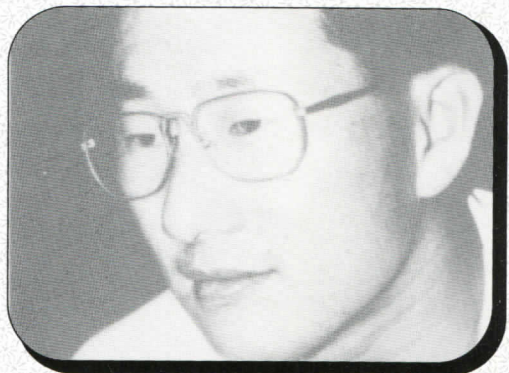
제작/
최시영



작곡/
박철홍



무대장치/
김학지



무대장치/
조석진



소품/
최은영



진행/
이화진